

17.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사건이 일어났다.
- ② 큰형의 노력에 의해 집안이 다시 일어났다.
- ③ 그는 오랜 지병을 이겨 내고 병상에서 일어났다.
- ④ 오래된 서가의 책장에서 먼지가 뽀얗게 일어났다.
- ⑤ 유명 배우가 공항에 등장하자 환호성이 일어났다.

[18~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직 서해엔 가 보지 않았습니  
다. 어쩌면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그곳 바다인들 여느 바다와 다를까요  
깊은 개펄에 작은 게들이 구멍 속을 들락거리고  
언제나 바다는 멀리서 진펄에 몸을 뒤척이겠지요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  
가 보지 않은 곳을 남겨 두어야 할까 봅니다  
㉠ 내 다 가 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내 가 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늘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습니다  
- 이성복, 「서해」 -

(나)

방금 판 사과가 가득한 상자를 들고  
사과들이 테굴테굴 굴러 나오는 커다란 웃음을 웃으며

그녀는 서류 봉치를 나르고 있었다  
어떻게 기억해 냈을까 **고층 빌딩 사무실** 안에서  
저 푸르면서도 말그레한 웃음의 빛깔을

어떻게 기억해 냈을까 그 많은 사과들을  
사과 속에 꿰뚫처럼 뻗어 있는 하늘과 물과 바람을  
스스로 넘치고 무거워져서 떨어지는 웃음을

어떻게 기억해 냈을까 사과를 나르던 발걸음을  
발걸음에서 튀어 오르는 공기를  
공기에서 터져 나오는 햇빛을  
햇빛 과즙, 햇빛 향기를

어떻게 기억해 냈을까 지금 디딘 고층 빌딩이 땅이라는 것을  
뿌리처럼 발바닥이 숨 쉬어 온 흙이라는 것을  
흙을 공기처럼 밀어 올린 풀이라는 것을

[A]

19-3  
나 몰래 엿보았네 외로운 추수꾼의 웃음을  
그녀의 내부에서 오랜 세월 홀로 자라다가  
노래처럼 저절로 익어 흘러나온 웃음을

책상들 사이에서 **안 보는 척 보았네**  
외로운 추수꾼의 걸음을  
출렁거리며 하늘거리며 홀로 가는 걸음을  
걷지 않아도 저절로 나아가는 걸음을  
- 김기택, 「어떻게 기억해 냈을까」 -

[B]

(다)

[앞부분의 내용] 글쓴이(‘나’)는 머무르며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넓은 자연 공간인 원림을 마음속에 설정하고, 그곳에서의 생활을 상세하게 묘사한다.

오호라! 인생은 백 년의 제한이 있고, 뜻과 일은 서로 어긋나며, 태어날 때 가지고 오는 것도 없고, 이성을 떠날 때 쥐고 가는 것도 없다. 몸이 바쁜 이는 쉽사리 누릴 수 없고, 힘이 부족한 이는 성에 차지 않아 늘 한스럽다. 그러니 미래에 망상을 갖느니보다는 방외에 마음을 두어 노니는 것이 차라리 낫고, 경영하느라 애쓸 바에야 차라리 붓 끝에서 완성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결국 모든 일을 그만두면 힘들거나 편안함의 차이가 드러날 것이고, 그저 다시 즐기는 마음을 붙이면 좋고 나쁨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나의 뜻이요, 이것이 내가 마음속에 **의원**이라 이름 붙인 원림을 만들었으나 그 원림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는 까닭이다. 뜻에 만족하기만 한다면 원림도 또 통발이나 그물, 군더더기나 혹은 신세가 될 터인데 더구나 **종이 위에 펼쳐 놓은 말**이야 말해 무엇 하라!

그러나 내게 힐난하는 이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무릇 일에는 이름이 있고 실질이 있는데, 그대는 실제의 원림을 가진 적이 없는데도 먼저 그 이름부터 지었더군. 게다가 건물을 짓고 배치하면서 야단스럽게 문장으로 꾸미고 날마다 거닐며 취미를 즐기겠다고 설했더군. 남들이 정말 그렇게 하는 줄로 생각한다면 어찌 ㉠ **꿈에서 파초 잎으로 덮어 놓고 현실에서 사슴을 찾은 사람과 다르겠는가?** 그런데 그대가 그렇게 했으니 이름을 앞세우고 실질을 뒤로 돌리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그에게 이렇게 사죄하였다.  
“그렇지 않네. 마음은 안이요, 원림은 밖일세. 남은 밖에 있는 것을 구하고, 나는 안에 있는 것을 구하네. 그대는 원림이 있다 생각하고 보지만, 나는 원림이 **없다 생각하고** 본다네. 원림이 없다 생각하고 보면 참으로 내 원림이 **없었던 적이 없으나** 원림이 있다 생각하고 보면 증거에 없매이고 사물에 구속되어 나와 남의 경계를 떠나지 못해 원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이 당연하네. 게다가 종이 위에 펼쳐 놓은 전원이 천 년 백 년 넘겨 유지된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때로는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남의 소유가 되기도 하니 어찌 마음을 손님으로 삼고 원림을 주인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아니면 또한 원림으로 이름을 삼고 마음으로 실재를 삼았던가? 이에 대해 반드시 변론하는 이가 나타나겠네.

옛날 증장통은 「낙지론」을 지어 소망했으나 그 즐거움을 진정으로 누리지는 못하고 글에나 기억하였을 뿐이네. 유린은 성품이 누각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였으나 가난하여 누각을 세울 재력이 없었다네. 그 친구인 문징중이 그를 위해 「신루도」를 그려서 선물했네. 나의 원림 또한 이와 같

거니와 그 뜻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운 일일세.  
 침재 강세황은 그림을 잘 그리는데 나를 위해 「의원도」  
 를 그려 주마고 약속하였네. 그렇게만 된다면 나의 노년이  
 어찌 뜻에 부족하겠는가? 이름과 실재를 그래 어느 겨를에  
 논하겠는가!”  
 - 유경중, 「의원지」 -

1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다)와 달리 (나)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특정 계절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② (가), (나)와 달리 (다)는 대화의 형식을 활용하여 인물 간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음성상징어를, (나)와 (다)는 현재형 진술을 활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가)는 의문형 어미를, (나)와 (다)는 감탄형 어미를 활용하여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다)는 모두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경외심을 강조하고 있다.

19.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웃음'과 '발걸음', [B]에서 '웃음'과 '걸음'은 문장 성분의 의도적 배치를 통해 주목의 대상으로 제시된다.
- ② [A]에서 '웃음'과 '발걸음'의 주체는 인공물과 자연물의 대응을 토대로 [B]에서 '외로운 추수꾼'으로 지시된다.
- ③ [A]에서 '웃음'에 대응되는 '사과'가 지닌 '하늘과 물과 바람'의 생명력은, [B]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야 무르익을 수 있는 것으로 부연된다. (선지파괴)
- ④ [A]의 '발걸음'에서 '햇빛 향기'로 이어지는 연쇄는 [B]에서의 '걸음'이 '걷지 않아도 저절로 나아가는' 것임을 나타낸다.
- ⑤ [A]의 '스스로 넘치고 무거워져서 떨어지는 웃음'은 [B]에서 '저절로 익어 흘러나온 웃음'에 대응되면서, '외로운 추수꾼'이 스스로 충만한 존재임을 드러낸다.

20.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기대를 간직한 채 망설이는 태도를, ㉡은 꿈에서의 기대를 내려놓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기대 실현의 가능성을 부정하려는 태도를, ㉡은 꿈에서 형성된 기대를 현실로 확장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미련을 버리고 기대에 연연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은 꿈에서 품은 기대를 떨치고 현실을 직시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현실에서 품은 기대가 좌절될 것을 염려하는 태도를, ㉡은 꿈에서 품은 기대를 허상으로 치부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사실의 확인을 유보함으로써 기대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은 꿈에서의 기대를 현실에서도 유지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2차는 같은 말

21.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문학적 상상력은 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넘어 비가시적인 세계를 '지금-여기'의 현실로 소환한다. (가), (나), (다)는 각각 '서해', '고층 빌딩 사무실', '원림'이라는 공간을 바탕으로 삼아 상상의 공간을 창출하고, 이 과정에서 동시적으로 구현된 공간들 간의 대비를 드러낸다.

- ① (가)에서 '당신'의 부재는 '서해'라는 공간을 바탕으로, (나)에서 '커다란 웃음'은 '고층 빌딩 사무실'이라는 공간을 바탕으로 상상의 공간을 창출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군.
- ② (가)에서 '여느 바다'에 대한 경험은 '그곳 바다'와의 공통적 속성을 유추하게 하는 동시에 두 공간이 대비를 이루는 것으로 의식하게 하는 단초로 작용하고 있군.
- ③ (나)에서 '서류 멍치를 나르'는 행위는 '방금 딴 사과가 가득한 상자를 들고' 움직이는 행위와 동일시되면서 현실과 상상의 공간이 동시적으로 구현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군.
- ④ (가)의 '가 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다)의 '의원'은 '없다 생각하고' 봄으로써 '없었던 적이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공간의 물리적 구속에 얽매이지 않는 비가시적 세계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나)의 '안 보는 척 보았네'라는 진술과 (다)의 '종이 위에 펼쳐 놓은 말'에 대한 언급은 비가시적인 세계를 현실에 소환하여 공간의 한계를 확인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22. (다)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원림을 '경영'하는 일과 '붓 끝에서 완성하는' 일을 대비하여, 실제 원림을 가꾸는 것보다 글로 원림을 표현하고 즐기는 것이 더 낫다고 보았다.
- ② '힐난하는 이'는 '이름'과 '실질'의 관계를 언급하며, 원림을 실제로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소유한 것처럼 여기는 글쓴이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 ③ '나'는 원림을 '있다'고 전제하고 바라보면 실제하는 형상에 얽매이게 되어, 오히려 원림을 즐기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나'는 '중장통'과 '유린'의 사례를 들어, 글이나 그림이 실제로 존재하는 원림을 대신하는 구실을 하여 진정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나'는 '이름과 실재를 그래 어느 겨를에 논하겠는가'라고 언급함으로써, 원림의 존재를 둘러싼 논의를 부차적인 것으로 보았다.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냥도 꿈이로다 등짐도 꿈이로다.  
 뒤에서 당기는가 앞에서 미는가.  
 아무리 구부려도 자빠지니 어찌하리.  
 멀지 않은 주인집을 천신만고 겨우 오니  
 벼슬아치 앞에 다녀왔나 땀이 등을 적시겠구나.  
 ㉠ 저 주인의 거동 보소. 코웃음 치고 비웃으며  
 양반도 할 수 없다. 동냥도 하시느고?  
 중인도 속절없다. 등짐도 지시는고?  
 밥벌이를 하셨으니 저녁밥을 많이 먹소.  
 ㉡ 네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동냥도 한 번이지 **벌어먹기** 매번 하라.  
 평생에 처음이요 다시 못 할 일이로다.  
 차라리 굶을망정 이 노릇은 못 하겠네.  
 무슨 일을 하잔 말인가. **신 삼기**나 하리라.  
 짚 한 단 적서 놓고 신날부터 꼬아 보니  
 ㉢ 종이 노도 모르는데 짚 새끼를 어찌 꼬리.  
 다만 한 발 채 못 꼬아 손바닥이 부르트네.  
 할 수 없이 내어놓고 **노 꼬기**나 하리라.  
 긴 삼대 벗겨 내어 자리 노를 배워 꼬니  
 오동에 낙엽 지고 가을바람 소슬한데  
**오리는 가지런히** 날고 **물과 하늘 한 빛**이구나.  
**근심 많은 이내 마음 노 꼬기**에 부쳤도다.  
 (중략)  
 내 아니 잇었는데 임이 설마 잇었으랴.  
 풍운이 흩어져도 모일 때가 있으니  
 눈서리 친다 한들 ㉣ **비와 이슬** 아니 올까.  
 울면서 떠난 **입을 웃으며** 만나고 싶네.  
 이리저리 생각하니 가슴속에 불이 난다.  
 간장이 다 타니 무엇으로 **끄겠는가**.  
 끄기도 어려운 불 오장의 불이로다.  
 ㉤ **하늘 물 얻으면** 꿀 수도 있건마는  
 알고도 못 얻으니 허가 말라 말이 없다.  
 차라리 빨리 죽어 이 설움을 모르고 싶네.  
 포구 가에 퍼져 앉아 종일토록 통곡하고  
 바다에 몸을 던져 죽으려 함도 한두 번이 아니며  
 적막한 중문 굳게 닫고 온갖 일 다 버리고  
 굶어 죽으려 함도 몇 번인지 아실른가.  
 ㉥ **일각이 삼 년처럼 더디 가니 이 고생을 어찌할꼬**.  
 사립문에 개 짓으니 나를 놓아줄 **공문**인가.  
 반겨 나가 물어보니 황야\* 파는 **장수**로다.  
 바다에 배가 오니 **석방 문서 가진 관선**인가.  
 일어서서 바라보니 **고기 잡는 어선**이라.  
**하루 열두 시를 몇 번이나 기다렸**느고.  
**설움** 모여 병이 나니 온갖 증세 한꺼번에 나온다.  
 ㉦ **배가 고파 허기중에** 몸이 추워 **냉증이요**  
**잠 못 들어 현기증** 나니 **조갈증은 늘 앓는 병**이로다.  
 술로 든 병이면 술을 먹어 고치며  
**임으로 든 병**이면 입을 만나 고치니  
**공명으로 든 병을 공명하여 고치려고** 한들  
 활을 맞고 놀란 새가 파녁에 앉으려 하겠는가.  
 - 안도환, 「만연사」 -

\* 황야: 일용 잡화.

2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영원성과 대조되는 인간사의 무상함을 절제된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어지러운 세태를 제시하고 이에 거리를 두어 관조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주변 경치를 관찰하고 느낀 감상을 표출하고 있다.
- ④ 자연에서의 낯선 경험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탈속적 이상향을 향한 동경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제시하는 형식을 반복하여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명령형 표현을 사용하여 이어지는 내용에 대한 집중을 유도하고 있다.
- ② ㉡: 유사한 문장 구조를 대응시켜 상대의 언행에 대한 반응을 강조하고 있다.
- ③ ㉢: 상반된 행위를 연달아 배치하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과장된 표현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⑤ ㉤: 열거의 방식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신체적 반응을 구체화하고 있다.

25.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는 특정 행위가 동기로 작용하여 일어난 상반된 결과이다.
- ② ㉡와 ㉤는 정서의 형성을 매개하면서 그 정서가 표출되는 방식의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이다.
- ③ ㉡와 ㉤는 상황의 개선에 대한 기대를 투영하나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대비를 이루는 대상이다.
- ④ ㉡에서 ㉤로 이어지는 자연의 순환은 화자가 처한 상황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이다.
- ⑤ ㉡에서 ㉤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은 화자가 처한 상황이 바뀔 것임을 암시하는 배경이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만연사」의 화자는 귀양살이의 열악한 생활에 적응해 나가려고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탐색과 반응의 구조는 귀양살이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을 강화한다.

- ① ‘빌어먹기’에 이어서 ‘신 삼기’와 ‘노 꼬기’를 시도하는 화자의 모습은 귀양살이의 열악한 생활에 적응하려는 반복적인 노력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지런히’ 나는 ‘오리’ 및 ‘한 빛’을 이루는 ‘물과 하늘’은 ‘근심 많은 이내 마음’을 ‘노 꼬기’에 부치게 된 화자의 상태에 조응하는 자연의 풍광이라고 볼 수 있군.
- ③ 귀양살이에서 벗어나 ‘임’과 ‘웃으며’ 재회하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은 ‘하루 열두 시를 몇 번이나 기다렸’다는 진술에서 그 간절함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④ ‘공문’과 ‘장수’의 대응과, ‘석방 문서 가진 관선’과 ‘고기 잡는 어선’의 대응은 희망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면서 소망의 실현이 어려운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군.
- ⑤ ‘임으로 든 병’을 고치는 방법에 착안하여 ‘공명으로 든 병’을 ‘공명으로 고치려’는 것은, 귀양살이로 인한 ‘설움’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이라 할 수 있군. (해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날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절차인 **「이름얻기」**는 해가 하늘 한가운데 왔을 때에야 시작되었다. 그와 다른 열한 명의 소년은 ‘들소의 계곡’ 입구에 배치되었다. 그들은 다른 혈족들과 싸움 중이면 전열의 맨 앞에, 그렇지 않을 때는 맹수 사냥의 창잡이로 나서야 했는데, 그해는 들소 사냥의 창잡이로 결정된 것이었다. 들소는 한 마리만 해도 온 혈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훌륭한 식량원인** 동시에 힘과 용기를 시험하기에 가장 알맞은 맹수였다. ㉠ **그 날카로운 뿔은 호랑이의 뱀가죽을 찢어 놓고 채증 실린 발굽은 곰의 허리뼈를 분질러 놓았다.**

㉡ **소년들은 흥분과 초조 속에 떨리서 소를 몰아오는 아버지들의 은은한 함성을 듣고 있었다.** 이제 잠시 후면 나타날 소들과의 싸움에서 그들은 어디엔가 숨어서 보고 있는 큰 아버지들로부터 **진정한 용사의 자격**과 평생을 따라다닐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그들이 지닌 이름은 ‘달무리’라든가 ‘붉은 노을’, ‘새벽 안개’ 따위, 태어날 때의 자연 현상과 관계되는 유아의 이름이었다.

그가 맡게 된 것은 계곡 가운데의 조그만 바위 곁이었다. ㉢ **그 역시 불안과 설렘으로 방금이라도 소가 뛰어나올 것 같은 전방의 숲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그를 건드리는 소년이 있었다. 눈이 작고 좁체 감박거리지 않는다고 해서 ‘뽕눈’이라고 불리는 소년이었는 데 힘은 대단하지 않아도 창과 활을 잘 다루고, 무엇보다도 영리하여 곧잘 아버지를 감탄시켰다.

“너는 저쪽으로 가. 내가 여길 지킬 테니.”  
‘뽕눈’이 말했다. 그는 웬지 ‘뽕눈’이 섬뜩하고 싫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살펴보니 여기가 들소의 길목이야. 그런데 너의 영성한 창질이나 활 솜씨로 지켜 낼 수 있을 것 같아? 차라리 ‘붉은 노을’ 쪽으로 가 봐. 그 애는 힘이 세고 창을 잘 쓰니까 오히려 그쪽이 안전할 거야.”  
그는 무언가 ‘뽕눈’에게 속고 있는 기분이 들었으나, 마땅한 반박이 떠오르지 않아 ‘붉은 노을’ 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말았다.  
들소는 그로부터 오래잖아 나타났다. 아버지들의 요란한 함성과 나무토막 두들기는 소리에 몰려 뛰쳐나오는 들소를 맨 처음 발견한 것은 산부리 쪽에 있던 ‘큰 울음소리’였다.  
“소가 온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목소리는 결국 그 들소의 심장이 완전히 멎을 때까지 계속됐다.  
그도 곧 숲 가의 관목 사이를 헤치고 달려오는 들소를 보았다. 처음 그 소는 똑바로 ‘뽕눈’을 향해서 들진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어느새 바위 위에 올라가 똑바로 창을 던질 자세를 취하고 있는 ‘뽕눈’ 바로 곁에서 소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뽕눈’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견 소는 ‘뽕눈’을 피해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뽕눈’이 올라서 있는 한 길 남짓한 바위를 피해 간 것이었다. 거기다가 소가 방향을 바꿀 때 소의 가장 넓은 옆면이 그대로 ‘뽕눈’에게 노출되었다. ‘뽕눈’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소에게 창을 날렸다. 창은 어김없이 소의 길긴 뱀가죽을 뚫고 깊숙이 박혔다. 결국 ‘뽕눈’은 가장 안전한 곳에서 ‘맨 먼저 찌른 자’란 명예를 확보한 셈이었다. 더군다나 그 바위는 풀숲에서 드러나 있어 큰 아버지들에게는 ‘뽕눈’의 용기와 힘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무대와도 같았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런 것을 한스러워하고 있을 틈이 없었다. 옆구리에 창을 받은 들소는 바로 그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황급히 창을 겨누었다.** 그러나 달려오는 들소의 정면은 ‘뽕눈’이 맞힌 넓은 옆면의 삼 분의 일도 안되었다. 남은 것은 정면 대결뿐이었다. 그는 혼신의 용기로 창을 고쳐 잡았다. 하지만 그는 곧 **돌쳐 오는 사나운 콧김과 거친 발굽 소리에,** 고통과 분노로 불타는 두 눈과 치명적인 일격으로 고양된 **생명력이 뿜어내는 엄청난 살기에** 그만 압도되고 말았다.

[중략 부분의 내용] ‘소를 겁내는 자’가 된 그는 들소 사냥에 재도전하지만 실패하고 동굴로 들어가 들소 그리기에 몰두한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소들을 관찰했다. 그들은 물을 마시고 소금기를 핥은 후에도 유유히 주변을 배회하며 신선한 풀을 뜯었다. 그런 그들을 발굽에서 뿔 끝까지 터럭 하나 놓치지 않겠다고 살펴보고 있는 그의 가슴은 들소와 대면했던 지난날의 그 어느 때보다도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때는 기껏 **고기와 가죽을 얻기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네 존재 자체이다. 이제 나는 너를 **나만의 선과 색으로 영원히 잡아 두고자** 한다. 누구에게 바쳐지는 것도 아니고 영력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의 화체 바로 그림 자체를 위해서이다…….

그가 들소에게 몰두해 있는 사이에 햇살은 점점 기울고 있었다. 그와 함께 그의 몸을 오르내리던 신령이 조금씩 고통으로 변해 갔다. 그는 벌써 며칠 전부터 그런 증상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제 그 고통은 내일 날이 밝아야 없어질 것이었다.

갑자기 한 줄기 서늘한 바람에 그는 심한 재채기가 났다. 그러자 놀란 소들이 그가 있는 벼랑 쪽을 노려보았다. ㉔ 하지만 공격할 만한 곳이 못 된다고 판단된 듯 몇 번 위협적인 콧김을 내뿜더니 어슬렁거리며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몹시 기분이 상했다는 식의 걸음걸이었다.

㉕ 동굴로 돌아온 그는 서둘러 준비해 둔 관솔가지에 불을 붙이고 동굴 벽에 돌출한 바위 위로 올라갔다. 손만 뻗으면 천장의 들소 그림에 닿는 곳이었다. 그는 근처의 바위 틈새에 불붙은 관솔가지를 꽂고 그 불빛에 의지해 방금 보고 온 들소의 모습을 천장 벽에 옮기기 시작했다. 채색을 하기 전의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었다. 어렴풋한 윤곽으로만 떠올라 있던 소는 수지에 갠 검댕으로 점차 선명한 형태를 이루었다. 날카로운 눈으로 전방을 응시하며 앞다리에 힘을 모은 수소였다.

소묘가 완성되자 그는 잠시 그 소를 들여다보았다. 문득 자기에게 덮쳐 오던 엄청난 생명력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느낌에 불만스러웠다. 아마도 정지된 자세 때문인 것 같았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그는 엉덩이 쪽을 더 살리고 뒷다리를 앞으로 굽게 했다. 질주해 오다가 우뚝 멈추어 선 것 같은, 약간의 생동감이 살아났다.

그때 관솔가지가 다 타서 불이 꺼져 버렸다. 바닥으로 내려와 새로운 관솔가지를 찾아 든 그는 거기에 불을 붙이려다가 곧 단념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잊고 있었던 그 **오한과 신열**이 거대한 피로와 함께 갑작스레 그를 짓눌러 왔다.

- 이문열, 「들소」 -

27. 이문열의 「이름얻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태어날 당시의 명명과 달리 용기와 사냥 능력을 시험함으로써 새롭게 정체성을 부여받는 의식이다.
- ② 이름에 내재된 자연 현상의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부족의 세계관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의식이다.
- ③ 신체의 강점과 전투력을 보여 줌으로써 태어날 때 임의로 부여받은 이름을 공고히 유지하는 의식이다.
- ④ 관습에 따른 명명에서 벗어나 집단과 차별되는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개인의 특성을 드러내는 의식이다.
- ⑤ 이름을 일방적으로 부여받는 것과 달리 공동체에 이익을 제 공함으로써 호명될 이름을 선택하는 의식이다.

28. ㉑~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대상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부분을 부각하여 그것이 지닌 위력을 강조하고 있다.
- ② ㉒: 사냥을 앞둔 소년들의 긴장감을 청각적 경험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 ③ ㉓: 복합적인 심정으로 목표물과의 대면을 기다리는 주인공의 모습을 묘사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 ④ ㉔: 인물의 심리를 대상에 투영하여 대상의 움직임에 의도를 부여하고 있다.
- ⑤ ㉕: 행동의 연속적 제시를 통해 관찰에서 표현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익숙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29. [A]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빈번하게 장면을 전환하여 인물들 사이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초점화된 인물의 시선을 통해 사건의 국면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방어적 선지)
- ③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을 통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④ 사건의 인과 관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며 예측했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인용 부호를 생략한 발화를 제시하여 사건을 바라보는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3인칭 제한적 서설의 특징

3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서 '들소'는 주인공이 도달하고자 하는 욕망의 총체이다. 들소를 식량원이자 서열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공동체의 요구 방식에 따라 들소를 포획하고자 했던 시도에서 실패한 주인공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들소를 포착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들소는 물리적 살생의 대상에서 예술적 형상화의 대상으로 재규정된다.

- ① '훌륭한 식량원'과 '진정한 용사의 자격'을 얻고자 소년들이 나서는 것은 공동체의 요구 방식에 따라 수립 대상인 들소를 포획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군.
- ② '돌진해 오'는 들소에게 '황급히 창을 겨누었'지만 '덮쳐 오는 사나운 콧김과 거친 발굽 소리'에 공포를 느끼는 것에서 주인공의 포획 시도가 실패할 것임을 알 수 있군.
- ③ '오한과 신열'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림에 몰두하는 모습은 들소를 포착하여 공동체의 서열에 진입하고자 하는 주인공의 욕망을 보여 주는군. (해설)
- ④ '엄청난 살기'를 뿜어내는 들소의 '생명력'을 두려워하는 데서 벗어나 이를 그림에 온전히 담으려 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들소를 포착하려는 시도에 대응하는군.
- ⑤ '고기와 가죽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의 선과 색으로 영원히' 들소를 '잡아 두고자' 하는 것에서 들소가 예술적 형상화의 대상으로 재규정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군.

주해

노왕

군주

고상서, 사랑(췌) - 부인(췌)

이중백 - 오현오

고 3

국어 영역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 태후는 상의 계모이시고, 노왕은 주 태후의 소생이고, 군주는 노왕의 딸이었다. 군주를 본국에 보내지 않고 태후가 곁에 두고 사랑하였다. 이날, 군주가 보모를 데리고 구경하다가 우연히 중백의 고이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 ㉠ 천상 신선 아니면 수중 비룡처럼 느껴졌다. 보모를 시켜 뉘 집 상공인지를 알아 오라고 했다.

유모가 응명하고 가서 즉시 보고하기를, “좌영윤 이중백이더이다.”

군주가 기뻐했다. 태후께 중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시집가겠다고 말씀드렸다. 태후가 상을 알현하고 여쭙니 상이 또한 태후의 말씀을 공경하시고 순순히 따르셨다. 중백을 불러 혼인 하라고 말씀하셨다. 중백이 한사코 사양했다. 그러자 상이 시랑과 태후를 불러 우격다짐으로 택일하니, 오월 순희였다.

사랑이 부인을 향하여 ㉡ 무수히 탄식하며 말하기를, “어찌해야 옳으리오?”

부인이 침을 오열하여 말하기를, “첩의 뜻이 매우 착잡합니다. 성례하면 상의 뜻을 기망할 뿐이어서 옳바르지 않고, 현요가 중백에게로 가면 부부의 정은 천자의 위엄이라도 폐하지 못하나이다. 영윤의 위세와 풍채 장부로 자나 깨나 생각하던 가인을 버리고 어찌 상명을 지켜 신의를 저버리겠습니까! 만일 현요와 성례한 이후에는 만사에 혐의가 없어질 터이니, 군주의 은혜를 막고 끊어 현요 있는 곳으로 빈번하게 월장하여 삼가지 못해 방자하게 이르거라도 한다면, 틀림없이 참화가 우리와 저희에게 적지 않게 미칠 것입니다. 현요의 연연약질로 그 사이에 자진할 것이니, 제 나이가 어리고 아직 차라리 성례를 말고 중백이 군주를 가까이하고 좌처를 임의로 알아 하거든 소저의 일신이 고요한 데서 제 마음을 평안히 하여 어가가 간섭하는 바가 없으면 비록 문을 바라는 과부가 되어도 아직 종말을 보아 가며 선처하느니만 같지 못하리이다.”

사랑이 옳게 여기지만, 현요의 부친 오 상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례하라고 하던 몽중사를 생각하고 이에 묵묵하여 결단치 못했다. 이에 수매정에 가서 현요를 만나 부인의 말씀을 전하니, 소저가 부끄러워하며 고운 얼굴로 대답하기를, “숙모의 말씀이 지당하시니 소녀 또한 원하는 마음도 이 밖에서 벗어나지 않나이다.”

말을 마치고 천연 자약하니, 대개 그 숙부를 위로하는 뜻이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군주와 혼인한 후에 이중백이 군주를 멀리하자, 군주는 그 연유를 알아내고 주 태후와 천자에게 고변한다. 천자의 노여움을 산 이중백은 감옥에 갇힌다.

한편, 각도 제후들이 천자에게 주문하기를, “제나라 왕이 반의를 두어 날마다 장사를 모으고 삼군을 조련하오니 사신을 보내시어 칙지를 내려 문죄하시고 그 기미를 규찰하도록 하십시오.”

상이 근심하시어 마땅히 보낸 직한 사람을 생각지 못해 답답하셨다.

승상 주연이 태후께 가만히 여쭙기를,

“이제 가장 기묘한 계책을 말씀드리겠나이다. 중백의 죄를 사해 문죄하라 하고 오 소저를 만 리 노국에 실어 보내어 세자의 후궁을 삼게 하면 두 쪽 문제가 모두 해결되리니,

[A]

군주의 일신도 편하시고 노국 세자도 질책을 얻으면 기뻐할 것입니다. 어찌 그 계교가 기특치 아니하리오.”

태후와 군주가 이 말을 들었다. 계교로서는 아주 절묘했다. “승상은 범연히 생각하지 말고, 힘쓰고 힘써 도모하라!”

주연이 말하기를, “하교대로 착실하게 수행하리이다.”

주연이 이튿날 조참에 출반하여 아뢰기를, “제국 사신을 마땅히 강렬 충직하고 문무겸전한 대신을 보내어야 반드시 천조를 욕 먹이지 않고 후환을 없게 하리니, 폐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해서 보내려 하시나이까?”

상이 이르시기를, “짐의 생각이 또한 그러하다. 경등이 천거하여 짐의 근심을 덜게 하라!”

주연이 다시 부복하여 아뢰기를, “감옥 죄인 이중백이라는 위인이 이 소임에 적합하오니, 이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사신으로 임명하여 보내시면 마땅할까 하나이다.”

상이 본디 이중백을 중히 여겼던지라 즉일에 사면하시고, 상서를 복야에 승품하사 제국에 보내는 사신으로 삼으셨다. 그 양형을 사면해서 사신으로 삼은 까닭은 태후의 참정을 용인하셨다고 할 수 있다. 승품하신 처사는 태후의 바람과는 관련이 없다. 태후의 뜻을 승순하여 죄를 내리는 듯하면서도 사실은 품계를 더 높이 올렸으니, 상이 이중백을 총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삼인이 사은 퇴조하니, 심 부인이 ㉢ 놀라고 슬피 울며 말하기를,

“내가 너를 그 나쁜 광서 속으로 보내 놓고 그토록 간장을 녹였더니, 또 이제 너를 만리타국에 보내어야 하다니. 이 착잡한 회포를 어찌 참으란 말인가?”

상서가 모친을 위로하기를,

“자신을 오래 떠나는 정은 간측하오나 소자의 대명은 하늘이 아시는 바라. 조금도 염려하실 일이 아니로소이다. 다만 우리 일을 누설함은 가중에서 일어난 바요, 군주가 만든 일이옵니다. 이번에 소자를 놓아 사신으로 삼으심도 주연과 태후의 계교이니 소자가 제국으로 간 후 틀림없이 오 씨를 참살할 뜻이오니, 어찌 분완치 않으리오까. 군주가 제가 출행하기 이전에는 응당 체면으로 억지로라도 나올 것입니다.”

[B]

군주는 종래 병이 있다고 핑계하고 나오지 않았다. 정 보모를 보내어 기색을 살피라고 하니, 보모가 상서 가중에 와서 기색을 살폈다. 사람마다 반가워하여 사색하지 않으므로, 보모가 ㉣ 대화하여 저희들의 작용인 줄 모르는가 하고 여겼다.

대내에 들어가서는 여쭙기를, “상서의 집 사람이 다 청안 우매하여 기미를 모르고 상서는 강정에 나와 숙부께 뵈오려 가 계시더이다.”

군주가 당초에 궁에서 나아가고 싶으나, 상서의 엄위한 기상으로 섭섭한 질책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감히 나아가지 못했다. 기실은 상서가 원행해야 하므로 아니 나옴이 도리가 아니요, 또 상사 일념에 마침내 숙청을 풀지 못했는지라 다시 보러 가지 하여 상서 부중에 나왔다. 가중의 상하가 군주를 보고 ㉤ 피로워하고 무이히 여기며, 마지못해 상서 집안의 사람들이 군주를 보고 억지로 다 위대하다고 할 따름이었다.

- 작자 미상, 「수매청심록」 -

3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증백은 군주와의 혼인을 거절했으나 상은 강제로 혼인 날짜를 정했다.
- ② 시량은 현요가 과부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인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선자파려)
- ③ 상은 적절한 자질을 갖춘 인물을 사신으로 보내야 한다는 승상 주연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④ 승상 주연은 증백의 사면을 건의했고 상은 이를 수용한 후 증백에게 기존보다 더 높은 지위를 부여했다.
- ⑤ 군주는 증백의 질책을 염려하였으나 증백이 떠나기 전에 상서 부중에 나가는 것이 도리에 부합하는 행위라 판단했다.

3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증백'을 우연히 본 '군주'의 반응이며, '보모'에게 원하는 정보를 구해 오라는 요청으로 이어지는군.
- ② ㉡: '상'의 명령을 받은 '시량'의 반응이며, '부인'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질문으로 이어지는군.
- ③ ㉢: 새로운 정보를 접한 '심 부인'의 반응이며, 거듭되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심정을 밝히는 발언으로 이어지는군.
- ④ ㉣: '상서 가중'을 관찰한 '보모'의 반응이며, 이들의 숨은 속내를 '군주'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이어지는군.
- ⑤ ㉤: '군주'를 본 '가중의 상하'의 반응이며, 본심을 감춘 언사로 이어지는군.

33.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제시된 제안은 [B]에서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가 분석되고 있다.
- ② [A]에서 예상된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B]에서 현실로 나타나면서 그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
- ③ [A]에서 언급된 기묘한 계획은 [B]에서 실현을 위한 방안이 추가되면서 단계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 ④ [A]에서 제안의 배경으로 제시된 대외 상황의 변화는 [B]에서 제안을 수용해야 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 ⑤ [A]에서 인물의 지위 차이로 촉발된 갈등 상황은 [B]에서 위계질서를 수용함에 따라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수매청심록」에는 공적 권력과 사적 관계가 맞물리는 양상이 나타난다. 공적 명령을 따르면 개인 간의 혼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제시된 대응은 생존을 우선시하는 전략적 판단의 성격을 지닌다. 한편, 대응의 과정에 수반되는 고난은 애정의 실현을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 ① 군주가 '태후께 증백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 상이 '증백을 불러 혼인하라고' 한 것은, 공적 권력이 개인의 애정 관계에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하겠군.
- ② 부인이 '부부의 정'은 '친자의 위엄'도 '폐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은, 공적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개인 간의 혼약을 지키는 것을 우위에 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부인이 언급한 '일신이 고요한 데서 제 마음을 평안히 하'는 것은, 개인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전략적 판단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승상 주연이 증백을 '소임에 적합'한 자로 평가하는 것은, 군주와 태후의 사적인 목표를 실현하는 방안과 공적 명분이 부합하는 상황을 포착했기 때문이겠군.
- ⑤ 증백이 '제국에 보내는 사신으로' 임명받는 것은, 증백과 현요를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애정의 실현을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십시오.